

종합

담양서 또 브루셀라병

전남도, 농가 사육 소 160마리 살처분

담양의 축산 농가에서 브루셀라병이 잇따라 발생, 축산 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담양군 무정면 한 농가에서 사육중인 소 337마리 가운데 150마리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현재 살처분이 진행중이다. 지난달 20일 같은 지역 A씨의 한우 농가에서 10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여 살처분된 뒤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전남도는 A씨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한우 농가 5곳에 대한 브루셀라 감염 여부를 조사하다 이 농장의 감염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남에서는 올 들어 담양에서만 160마리가 걸린 것을 포함해 곡성(1월), 영암·함평(2월) 등에서 189마리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살처분됐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전남에서 브루셀라 병으로 살처분된 소가 453마리(45농가)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인데다, 해마다 도내 농장 감염률(2008년 0.50%→2009년 0.22%

→2010년 0.13%)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축산 농가와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남도는 브루셀라의 경우 바이러스성이 구제역과는 달리 세균에 의해 전염되므로 직접 접촉이 아니면 감염률도 낮지만 예방 차원에서 해당 농가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살처분되는 소를 제외한 나머지 음성 판정을 받은 소에 대해서도 도축장으로 보내는 한편, 다른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소독 강화 및 외부인 출입 차단 등 방역 조치를 강화토록 당부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브루셀라 병=브루셀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가축전염병(2종)이자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동물은 암컷의 임신 후기 유산과 수컷의 고환염 증상 등을 보인다. 멸균처리가 안 된 유제품을 사람이 먹으면 전염된다. 사람이 감염되면 두통,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사람간 전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제역·AI 방역초소 철수

전남도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도내 모든 방역통제 초소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구제역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 국·지방도에 설치했던

281곳의 모든 방역통제초소를 13일부터 철수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초 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매몰처분된 약 320만마리의 가금류의 넉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수흔제(獸魂祭)를 오는 14일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에서 연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 만령

- 김종우



제발 '대한민국의 피' 좀 돼 주세요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의 02)6908-7021, 7024 (인사총무팀)

※ 참조 : 공시지가 ₩1,130,000~ ₩1,320,000/m²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공무원 특별자금

주조회 기획설계팀 / 대출금액: 1~4억 원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1~4억 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1년 6% 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 미만)

◆ 대출기간 : 1년 ~ 10년 (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 (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오는 16일 광주시 동구 학동에 문을 여는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은 최고급 음향 시설과 80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무료로 운영된다. 원내는 김명선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에 3억 들인 최고급 음악감상실 '다락' 화제

50년 클래식 사랑 결실
누구든지 오세요
입장료는 없답니다

김명선 전 킹스스쿨 이사장 ... 16일 오픈

1960년대 초반, 광주 종강로 금성레코드 앞을 지나던 까까머리 중학생 김명선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음악에 마음을 빼앗겼다. 주인에게 물으니 시카고 교향악단이 연주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몇개월간 돈을 아껴 200원으로 복제본을 샀고, 전족이 없었지만 책상 위에 놓아둔 앨범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후 '클래식 음악'은 그의 50여년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김명선(62) 전 킹스스쿨 이사장이 클래식 영상 음악감상실 '다락'(茶樂)을 오픈한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동구 학동에 킹스스쿨을 지어 65평 규모의 80석을 갖춘 음악감상실을 꾸미고 16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김씨는 광주에서 유명한 영어강사였다. 경신여고·송원고·문성고에서 이름을 날렸고, 광주 양영학원 강사 시절에는 매달 수강생 4700명은 순식간에 매진시키는 스

타강사였다. 김씨는 학교에 근무할 때도, 사설 학원을 운영할 때도 꼭 제자들이 클래식 음악을 접하도록 하는 '클래식 전도사'였다. 클래식 음악이 사람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고, 인내심을 기워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김씨가 음악감상실을 꾸밀 때 제일 먼저 한 생각은 최고의 감상실을 만들겠다는 거였다. 보통 시민들은 베를린 필 등 해외 유명연주회 실황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으나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게 하고 싶어서였다.

소요된 예산만 3억원에 달한다.

입구와 감상실 전체를 편백으로

꾸며 감상실에 들어서면 좋은 향

기가 난다. 1억원에 달하는 매큤토

시 XRT26 스피커와 B&O 파워앰

프를 갖춘 음향시설을 마련했고

대형 스크린으로 1080p 풀HD 영

상을 제공한다. 700여장의 고급 영

DVD를 포함해 수천장의 클래

식 CD를 보유하고 있고 신보들은 수시로 구입할 계획이다.

'다락'이 더욱 의미있는 건 이 공간을 광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휴일 없이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열며 시민들은 음료 등을 가져와 마음껏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매달 300여만원(기계 감가상각비 포함)에 이르는 운영비는 1층에 위치한 커피숍 수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강좌 등 클래식 관련 행사를도 진행하고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마크 레빈슨을 비롯, 2~3개월에 한번씩 스피커 등 오디오 시스템을 바꿔 다양한 소리를 들려줄 계획이다. 벌써 오디오 애호가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군산 등 전국에서 다녀가는 사람들 이 많다.

"제 수업을 들었던 재수생을 포함해 제가 광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죠. 무언인가를 틀려드 리고 싶었는데, 광주에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클래식이 학생들 인성 뿐 아니라, 성취도 향상에도 좋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동호인 등 클래식 애호가들이 꾸려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씨는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체험학습을 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락'을 많이 찾아 어려서부터 클래식과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226-01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거액 비자금 조성 협의
금호석유화학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관련 거래처 여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께 금호석유화학 본사로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회계과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이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짓황을 포착했다"며 "다면 수사 초기 단계라 비자금 규모와 조성 주체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호석유화학이 하청업체

와 거래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어리둥절하고 경황이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이나 목적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형제간의 경영권 다투에서 밀려난 박찬구 회장이 지난 해 3월 경영일선에 복귀한 이후 자동차와 타이어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지난해 3635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남 섬 풍광·독특한 문화 상품화

청산도 여행 등 10개 사업 추진

전남도는 12일 도내 섬의 빼어난 풍광과 독특한 문화를 상품화한 '남도 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연예인과 함께하는 청산도 여행(완도 청산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섬 여행(신안 일도) ▲여수엑스포 성공개최 섬 트래킹(여수 금오도) ▲솔로탈출 어부바 섬 만들기(목포 외달도) ▲

감진 청자축제와 함께하는 가우도 여행 등이다. 또 ▲전복 먹고 유훈도 만나러 가자(완도 노화·보길도) ▲연예인과 함께 하는 트래킹(영광 송이도)

▲섬 애코투어 국제 워크숍(신안 우이·증도) ▲명량대첩축제와 함께하는 가을여행(진도·해남 우수영) ▲CEO 초청 섬 인문학 여행(완도 노화·보길도) ▲자동차로 떠나는 섬여행(고흥 소록·거금도) 등이다.

이번 남도 섬 명소화사업은 도내

12개 시·군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 계획에 대해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한 iMBC, 전남대 생태관광연구센터 등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이현동 국세청장 来光
이현동 국세청장이 14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과 세업무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한다.

이 청장은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공정사회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연 뒤 광주 세무서를 방문, 직원 및 중소상공인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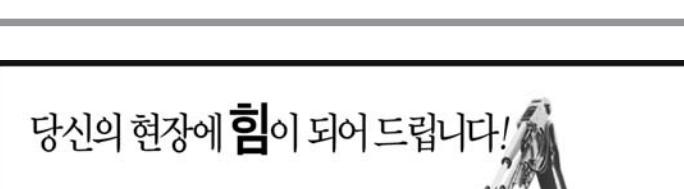
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올해 지원대상 언론사 수는 지난해에 비해 일간지는 26개사에서 30개사로, 주간지는 43개사에서 51개사로 늘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 사업, 연수교육 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금이 지원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일보 지역신문기금 우선지원대상 선정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최창섭)는 지역신문발전특별지원법에 따라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일간지 30개사와 주간지 51개사를 '201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4개월간 전국 120개 지역언론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신문으로서 발전 가능성, 지역 연계의 창의성, 사업계획, 최저임금제 준수 등 10여개 항목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게차 임대 · 렌탈
한국구보다 굴삭기
광주·전남 대리점

굴삭기 · 지게차 · 판매 · 임대 · A/S · 중고매매 · 캐피탈

덕승건기(주) · 덕승룰류기
T.959-0100, 374-1686, 010-8108-2500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로고
디자인
컨설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폭주!